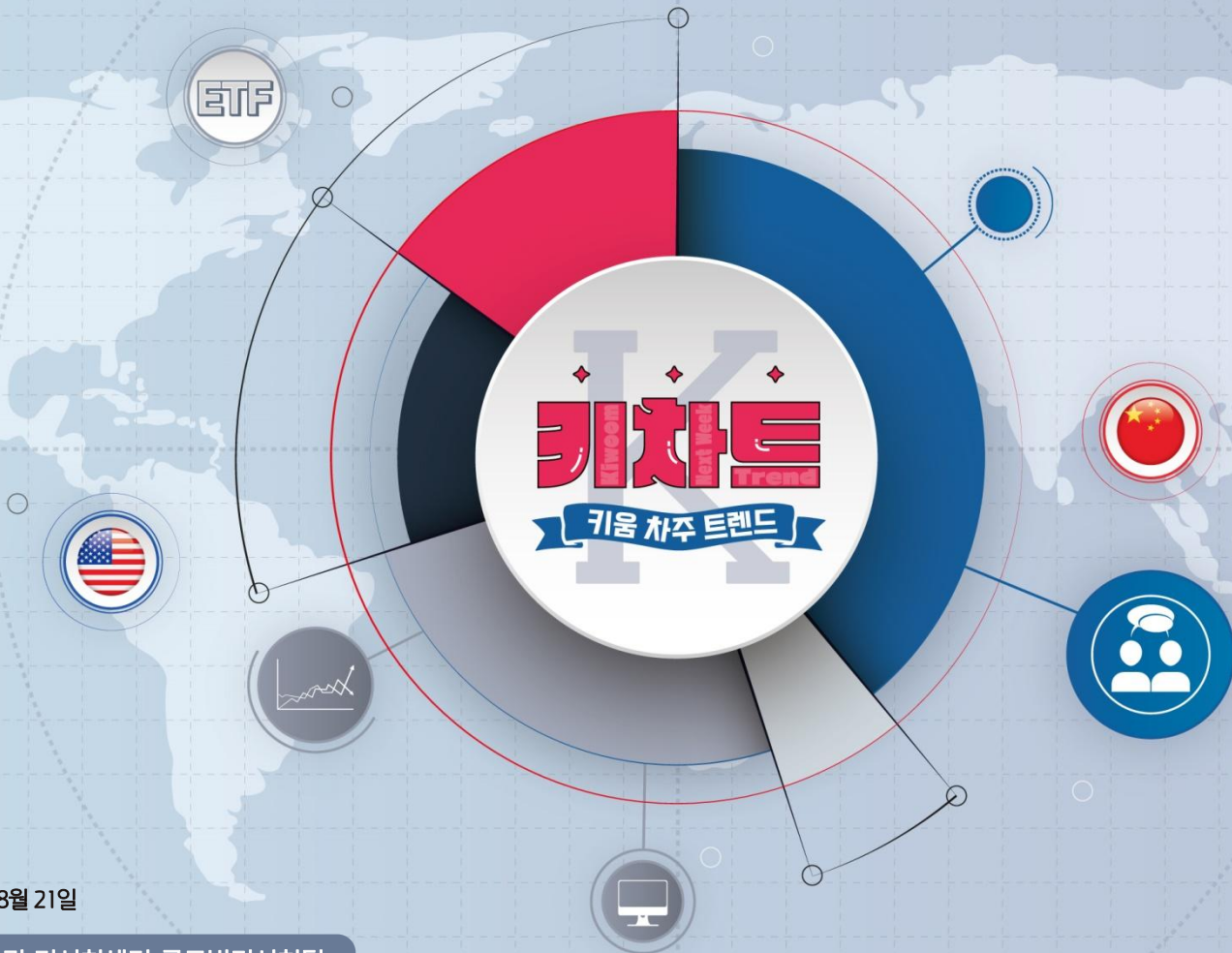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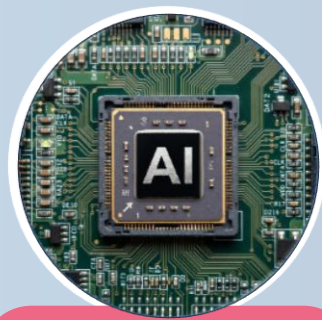


| 2026년 8월 21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8월 3주차

주요 트렌드 이벤트



금주 트렌드

美: 금주 미 증시는 장기채 금리 등락과 AI 하드웨어 차익 실현, 소비 둔화 우려 맞물리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시현. 미 재무부 바이백 발표에도 유가 상승·대규모 채권 발행 부담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기술주 밸류에이션 압박 지속. 앤트로픽 호재에도 각 주정부 데이터센터 인허가 규제 여파로 반도체 수출 안화 및 매출 출회. 더불어 월마트 실적 충격으로 저소득층 신용 부담과 K자형 소비 양극화 부각되며 경기소비재 전반 투자심리 위축

中: 금주 중화권 증시는 미국 장기물 국제 금리 급등 영향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조정. 업종별로는 석유, 은행 등 고배당 업종 상승.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은 조정.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가 실적을 발표했으며, AI 투자가 전분기 대비 확대됨

ETF: 금주 증시는 유가·장기금리 상승과 AI·반도체 차익 실현이 겹치며 기술주 중심 약세.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에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매파적 FOMC 의사와 금리 인상으로 반등 제한적. 개별주에서는 월마트 실적 부진이 소비 둔화 우려를 키운 반면, 홈디포·디어는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종목별 차별화 확대

차주 트렌드

美: 차주 미국 증시는 핫칩스(Hot Chips) 컨퍼런스, 엔비디아·마벨 실적이 예정된 'AI 반도체 슈퍼윙크' 진입에 따른 핵심 분기점 도달 전망. HBM과 차세대 GPU, 커스텀 칩 공개를 통해 인프라 수요 확장성과 기업별 실적 수익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 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전력 규제 속 주요 AI 경쟁진시 대형 기술주 중심 반등 단력 확대 회의 결과가 핵심 변수. 아울러 7월 PCE 물가와 국제 입찰을 거치며 장기금리 안정이 수반될 기대

中: 차주 중화권 증시는 엔비디아 및 다수 본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역의 증시는 알리바바가 2분기 실적에서 이익 회복 및 클라우드 성장 가속되는 모습을 보여 플랫폼 기업 주가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 지속 예상

ETF: 차주는 엔비디아·마벨 실적 통해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투자 수요의 지속성을 재확인하는 구간으로 변동성 확대 예상. 7월 PCE, 2Q GDP 수정치·내부재 주문,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정돼 있어 금리 경로 점검 필요. 최근 장기금리 상승 부담 컸던 만큼 AI 실적 호조와 물가 안정이 확인될 경우 기술주 반등 가능. 다만 재정 부담과 지정학 불확실성 지속시 안전자산 선호 확대 여지

미국 트렌드

- ◆ **K자형 소비 양극화:** 자산 가격 상승 수혜를 입은 고소득층 지출은 견조하나 중산층 이하는 높은 생활물가와 가계 신용 부담으로 필수품 위주 지출을 지속하며 K자형 소비 양극화가 한층 심화. 월마트 실적에서 고객 방문과 객단이 성장 둔화가 확인되며 재량 소비 위축이 가시화
- ◆ **AI 데이터센터 규제 병목:** 펜실베이니아 등의 환경 규제 및 지역사회 전력망 승인 의무화 조치로 데이터센터 착공 지연 리스크가 본격화됨. 이에 따라 반도체, 서버, 광통신 등 AI 하드웨어 밸류체인 전반의 주문 및 실질 매출 인식 지연 우려 가중

중국 트렌드

- ◆ **알리바바 FY1Q27 실적 예상치 부합:** 매출은 2,690억 위안(YoY +9%), 조정 EBITA는 273억 위안(YoY -30%)으로 예상치 부합. 클라우드의 성장 가속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된 가운데, 중국 커머스는 쿠팡커머스 적자 축소로 이익 감소 폭 완화. 하반기 경쟁심화 완화로 중국 커머스 이익 회복이 기대되며, 높은 AI 수요로 클라우드 사업은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
- ◆ **8월 19일 유니트리 상장:**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460% 상승하며 시가총액은 약 500억달러 기록. 다만 이후 주가는 밸류에이션 우려로 인해 이를 연속 조정

ETF 트렌드

- ◆ 유가·장기금리 상승과 AI·반도체 차익 실현으로 기술주 중심 조정이 나타난 가운데,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에도 금리 부담이 이어지며 업종·종목별 차별화 확대
- ◆ 차주는 엔비디아·마벨 실적과 주요 물가·경기지표를 통해 AI 투자 수요와 미국 경기·금리 경로를 재점검하는 구간으로, 기술주 중심 변동성 지속 예상
- ◆ 장기금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 조합이 달러 약세 및 실질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구조적 금 매입을 바탕으로 안전자산·디베이스먼트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는 ETF 'GLD' 소개

8월 4주차

주요 트렌드 캘린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3 일정	24  7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	25  7월 건축승인건수 7월 건축허가건수 ADP 주간고용 6월 주택가격지수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7월 신규주택판매  2분기 GDP 8월 현행평가, 기대 평가지수 8월 Ifo 기업환경지수  8월 소비자신뢰지수	26  7월 PCE 물가지수 7월 내구재수주  ECB 통화정책회의 보고서  9월 GfK 독일 소비자동향  8월 소비자신뢰지수	27  잭슨홀 심포지엄 8월 KC 연준 제조업, 종합지수  8월 CPI 예상치 8월 소비자신뢰지수  8월 실업률  8월 금융통화위원회	28  잭슨홀 심포지엄 8월 미시간대 CPI 예상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기대, 평가지수  8월 도쿄 CPI 7월 실업률	29
실적	 핀뒤뒤 ADR 샤오핑 ADR	 뱅크 오브 몬트리올 뱅크 오브 노바스코샤 인튜이트 쥔 커뮤니케이션스 우시바이오 ADR 샘텍 박스	 엔비디아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세일스포스 시놉시스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비바 시스템스 윌리엄스 소노마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옥타 누타닉스 리 오토 ADR	 마벨 테크놀로지 토론토 도미니언 오토데스크 워크데이 달러 제너럴 어펄 홀딩스 달러 트리 올타 뷰티 루브릭 베스트 바이 아이헨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비리비리 ADR 갭	 BYD ADR 미니소 그룹 홀딩 ADR	

루멘텀 홀딩스 (LITE.US): 실적으로 일축한 CPO 노이즈, NPO로 넓어지는 TAM

현재주가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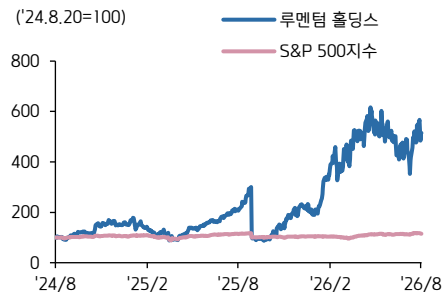
USD 209.84

Stock Data

산업분류	기술 하드웨어 & 반도체
세부업종	통신 장비
거래소	NASDAQ GS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7,641.16
시가총액(mln)	78,871.4
유통주식수(mln)	89.7
52주 최고	1085.68
52주 최저	115.21
일평균 거래량	5,273,726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138.6	5.0	31.7	648.8
S&P 500	11.6	1.8	10.6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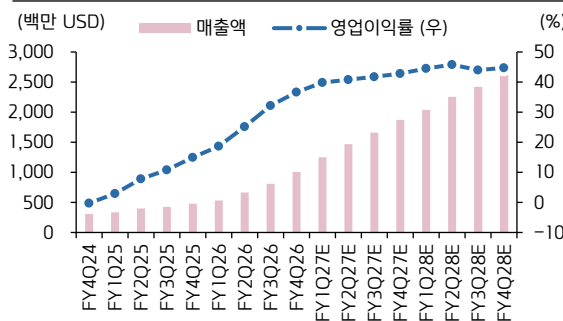


▶ **[분기 실적]** 4Q(6월 마감) 매출액은 \$1.01B(+109% YoY, +25% QoQ)를 기록하며 가이드스(\$960M~\$1,010M) 상단에 착지, 컨센서스를 약 2% 상회. 이는 8개 분기 연속 성장이자 3개 분기 연속 20% 이상의 QoQ 성장. Non-GAAP 매출총이익률(GPM)은 50.4%(+250bps QoQ)로, 당초 분기 매출액 \$2B 도달 시점의 목표였던 50% 선을 절반 수준의 매출에서 조기 돌파

▶ **[투자포인트 1] 스케일업의 두 번째 성장축인 'NPO':** 시장 일각의 CPO 상용화 지연 우려와 달리, 스케일업(Scale-up) 광학의 침투 경로는 NPO의 가세로 한층 다변화되는 중. NPO는 대부분 동사의 고출력 레이저 기반 ELS 모듈 방식을 적용해 대당 탑재 가치가 CPO와 사실상 동등하며, 광 엔진 통합형 미드파워(120~150mW) 레이저 수요까지 가세해 고객 저변이 확장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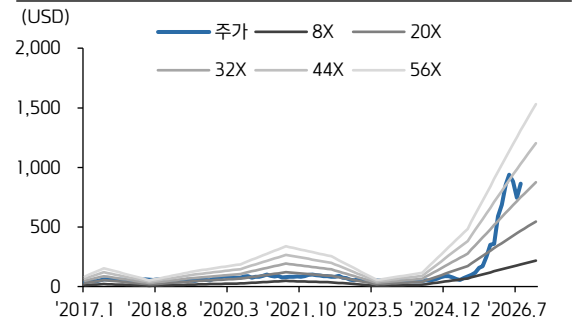
▶ **[투자포인트 2] 공급 부족과 가격 결정력:** EML의 30% 이상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고출력 레이저는 수요 폭증으로 공급 부족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강력한 판가(ASP) 프리미엄의 원천으로 작용 중. 4분기 GPM 50% 조기 돌파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이러한 제품 믹스 개선과 가격 결정력이 만들어낸 구조적 체질 개선의 결과물

LITE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LITE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USD)	FY25	FY26	FY27E	FY28E
매출액	1,645	3,014	6,264	9,491
영업이익	160	897	2,560	4,112
영업이익률(%)	9.7	29.8	40.9	43.3
순이익	146	782	2,193	3,526
EPS(USD)	2.06	8.67	21.42	33.30
PER(배)	217.2	125.9	41.1	26.4
PBR(배)	5.8	15.6	11.3	7.5
ROE(%)	2.5	-240.0	33.4	38.5
배당수익률(%)	-	-	-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8-20 컨센서스 기준, Non-GAAP 기준

SMIC (0981.HK): 펀더멘털과 모멘텀 모두 매력적

현재주가 (8/20)

CNY 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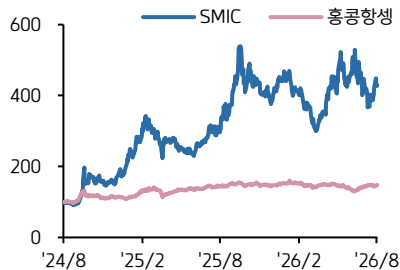
Stock Data

산업분류	기술 하드웨어&반도체
세부업종	파운드리
거래소	Hong Kong
상대지수	HSI
벤치마크 현재주가	25,698.5
시가총액(mln)	691,112.5
유통주식수(mln)	6,014.3
52주 최고	93.50
52주 최저	49.32
일평균 거래량	126,167,200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0.9	3.4	6.5	39.3
홍콩항생	0.3	2.2	-2.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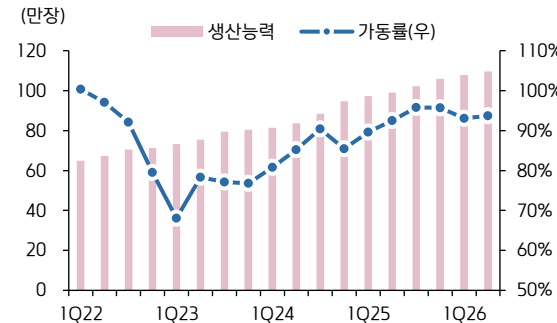
('24.8.20=100)



▶ **2Q26 실적 예상치 상회:** 2분기 매출은 30억 달러(YoY +36%, QoQ +20%), GPM은 25%(YoY +4.9%p, QoQ +5.2%p)로 예상치 및 가이드언스 상회. 매출은 출하량 증가가 주로 기여했으며, AI 관련 주변 칩 수요 급증과 고객의 조기 출하 요청이 주도. 어플리케이션별로는 PC·태블릿, 산업·자동차 매출이 QoQ 약 40% 증가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보드 관련 칩 수요가 크게 증가. 수익성은 가격 인상 및 높은 가동률이 신규 설비의 감가상각 증가를 상쇄하면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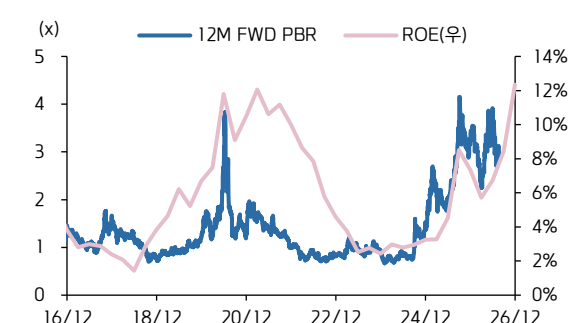
▶ **견조한 수요 및 가격 인상 효과로 이익 성장 기대:** 3분기 가이드언스는 매출 QoQ +2~4%, GPM 26~28%로 예상치 상회. 2분기 Pull-in 효과로 출하량의 추가 확대 폭은 제한적이거나, 가격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 향후 수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제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Logic, BCD·전력관리, 광통신 등 AI 관련 주변 칩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객들이 요구하는 향후 생산 물량 역시 연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 이에 따라 기존 생산능력만으로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추가 Capa 확보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회사는 기존 Fab 내 여유 공간에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기존 증설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2027년까지 높은 투자 강도가 지속될 전망

SMIC 분기 생산능력 및 가동률



자료: SMIC, 키움증권 리서치

SMIC 12M FWD PBR 및 RO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any Earnings & Valuation

(백만 USD)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8,030	9,327	11,798	14,136
영업이익	474	1,110	1,777	2,364
OPM(%)	5.9	11.9	15.1	16.7
순이익	493	685	1,363	1,789
EPS(USD)	0.1	0.1	0.2	0.2
PER(배)	81.7	104.3	54.3	41.6
PBR(배)	1.6	3.4	3.1	2.9
ROE(%)	2.4	3.3	5.9	7.0
배당수익률(%)	N/A	N/A	N/A	N/A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8-20 컨센서스 기준

SPDR® Gold Shares ETF (GLD.US): 금의 귀환

현재주가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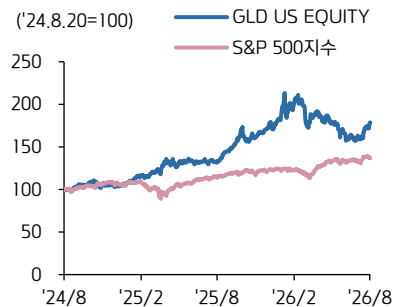
USD 415.26

Stock Data

자산군 분류	원자재
세부전략	금 현물
거래소	NYSE Arca
상대지수	SPX
벤치마크 현재주가	7641.16
순자산총액(백만 달러)	151,196.2
유통주식수(mln)	364.1
52주 최고	509.70
52주 최저	306.43
일평균 거래량	7,903,322.8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Y
절대	4.8	10.8	-11.4	35.1
S&P 500	11.6	1.8	10.6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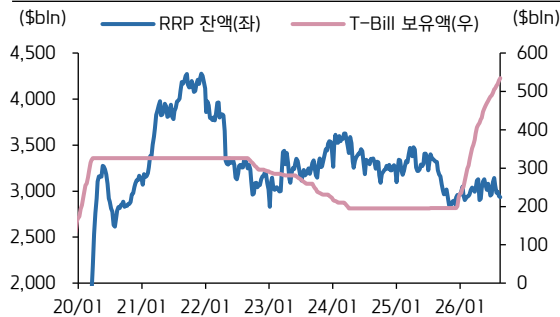


▶ **개요:** 'GLD'는 실물 금을 보유해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 현물 가격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ETF. 미국에서 거래된 최초의 금 ETF이자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미국에 상장된 최초의 ETF로, 투자자가 금 현물을 직접 매입·보관·보험 가입하는 과정 없이 증권시장을 통해 금 가격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 금 현물 직접 투자 대비 거래·보관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

▶ **투자포인트 1:** 미 재무부는 8월 QRA 발표 2주 만에 10~30년물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B에서 최소 \$4B로 확대하며 장기물 수급 안정 의지를 강화. 향후 바이백 추가 확대나 장기물 발행 확대 역제가 이어지며 재정조달이 단기물에 집중될 가능성. 이 과정에서 단기자금시장 여건이 타이트해질 경우 연준의 RMP 확대도 고려 가능. 일련의 조치가 달러·실질금리 하락으로 연결된다면 금 가격에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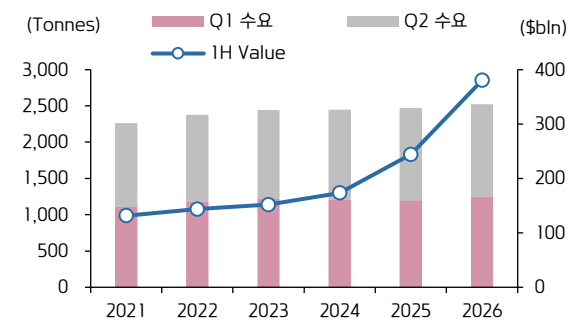
▶ **투자포인트 2:** 글로벌 중앙은행의 구조적인 금 매입 수요도 금 가격을 지지. 2Q26 중앙은행 금 순매입은 289톤으로 YoY +62% 증가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매입도 지속.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다변화 수요가 금의 구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 부담과 통화 가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및 준비자산 다변화 수혜가 더욱 부각될 전망

RRP 잔액 및 T-Bill 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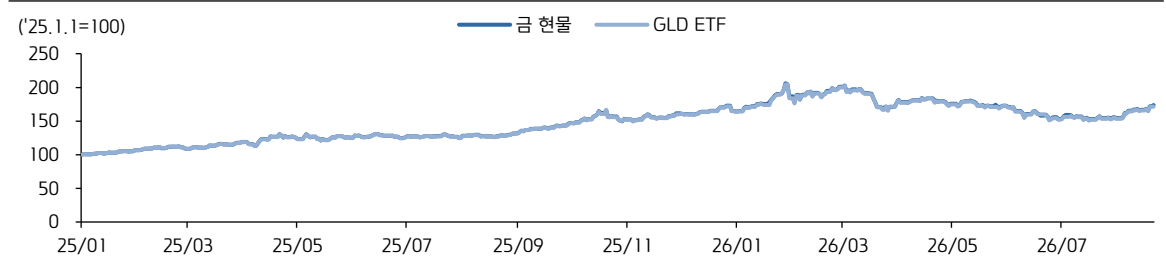
자료: FRED,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8-19 기준

글로벌 상반기 금 수요 및 금액 추이



자료: ICE Benchmark Administration, Metals Focus, World Gold Council,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6-30 기준

금 현물 및 GLD ETF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08-20 기준

GLOBAL RESEARCH

Kiwoom Next Week Trend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 Global ETF 김진영
- ◆ China Strategy 박주영
- ◆ US Strategy 김승혁
- ◆ US Equity 박기현
- ◆ RA 조호준
- ◆ RA 한유진

Compliance Notice

- “SMIC” 종목은 8월 18일 해외관심종목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